

브랜드 선호도 50%... 새로운 '카스 후레쉬' 선보여



오비맥주의 '카스'는 1994년 출시 이후 맛과 포장,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대한민국 대표 맥주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입소스(Ipsos) 코리아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성인 5550명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카스가 2016년 7월 말 기준 50.4%를 기록하며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맥주 브랜드에 뽑혔다.

경쟁 제품인 A브랜드(16.4%), B브랜드(5.7%)보다 많게는 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브랜드 호가든(4.2%)과 아사히(3.6%), 하이네켄(2.6%), 기네스(1.7%), 칭다오(1.1%)보다 월등히 높은 브랜드 선호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카스의 브랜드 선호도는 2008년 9월 이후 9번째 1위 자리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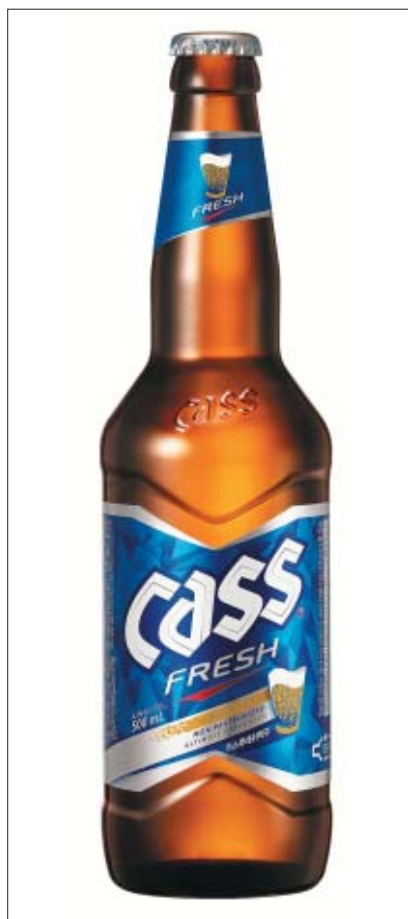
신선하고 짜릿한 맛을 앞세워 핵심 타깃인 젊은 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온 결과다. 실제로 카스는 지난 1월 말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카스 출시 이후 처음으로 카스 병을 완전히 교체했다.

새로운 '카스 후레쉬' 병은 입체적이고 실용성을 강화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병의 어깨 위치에 양각으로 '카스(CASS)' 로고를 새겼고, 몸통 부분을 안으로 살짝 굴곡지게 'V'자 형태로 제작했다. 입체적인 디자인을 통해 참신하면서도 역동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한 것이다.

500ml 병의 경우 기존 병보다 약 30g 정도 가벼워 실용성도 좋아졌다. 기존 맥주병은 일직선 형태의 평면 형태이지만, 카스의 새로운 맥주병은 몸통 부분이 안쪽으로 패여 소비자가 손으로 잡기 쉬워졌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카스는 끊임없는 혁신과 마케팅 활동을 통해 맥주 브랜드를 넘어 음주 문화를 선도하는 '젊음의 아이콘'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조선비즈 기자



기존 '여명808'에 숙취해소 뛰어난 식물성 원료 추가



음료 제조업체 '그래미'는 음주 전후 숙취를 해소하는 데 좋은 음료수인 '여명'을 생산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 제품명인 '여명808'은 807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808번째에 성공해 제품이 탄생한 데서 나온 이름이다. 건강에 좋은 식물성 원료를 엄선했다는 점에서 누구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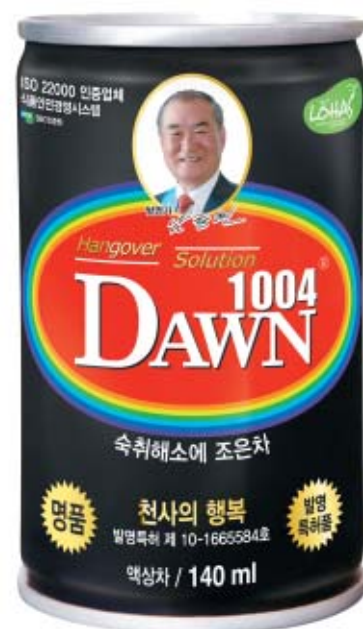
'여명1004'는 기존 여명808에 숙취해소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식물성 원료를 추가로 배합해 새롭게 탄생한 음료다. 가정과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하는 이들을 '천사'로 규정하고 이들을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제품명이 붙여졌다. 음주 후에 오

는 갈증과 속쓰림 등 모든 숙취를 말끔히 해소해준다는 것이 그래미 측의 설명이다.

그래미는 여명1004를 앞세워 소비자가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체험 마케팅을 진행해 최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명 국제 마라톤 축제와 대한민국 생활체육 북상대회, 전국 대학 동아리 선수권 대회 등 스포츠 후원에 적극 나서고 있고, 봄꽃 축제 등 계절마다 열리는 행사도 빠지지 않고 지원한다.

그래미는 장학사업과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전국 중·고등학교와 대학뿐 아니라 모범 경찰관 자녀와 의용소방대원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문혁 조선비즈 기자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부터 대출까지 "모바일 은행"

SUNNY BANK

신한은행의 '씨니뱅크'는 모바일뱅킹 전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명성이 높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직접 창구에 가지 않고도 계좌 개설부터 대출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모바일 전문 은행으로 불린다.

이 중 계좌 신규 개설은 신한은행이 비대면 실명 인증을 통해 제공하는 국내 최초 서비스다.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 기존 은행 거래 없이도 스마트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계좌를 새로 개설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여권과 학생증을 기반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국내 금융권 중 처음으로 관련 절차를 도입해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다에서나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한 '씨니 마이카대출' 또한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 중 하나다. 신한은행은 기존 '신한 마이카대출'을 모바일 채널로 확대해 새 플랫폼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마이홈 인테리어 대출', 직장인이 모바일에서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Sunny 직장인 대출' 등 고객 중심의 상품도 다양하게 선보였다.

이상빈 조선비즈 기자

유럽 고급향수에 쓰는 베르가못 오일 등 향 첨가



'피죤'은 지난 1978년 국내 최초로 출시

된 동명의 섬유유연제를 통해 국내 생활용품 시장에서 섬유유연제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리를 창조했다. '빨래편 피죤'이란 메시지가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면서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피죤의 섬유유연제는 타사 제품보다 향 지속력이나 선호도, 유연성이 좋은 편이다.

피죤은 최근 자연친화적 향품이 선호되는 '웰빙 트렌드'에 맞춰 제품의 향 선택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출시된 '피죤 리치퍼퓸'의 경우, '패쥬리 오일', '베르가못 오일' 등 유럽 고급 향수에 사용되는 7가지 고농축 오일을 첨가해 향의 품격을



높였다. 특히 피죤 리치퍼퓸에는 독일에서 개발된 '마이크로 퍼퓸캡슐'이 적용돼 향 지속성과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세탁을 할 때 향 캡슐이 1차로 터져 옷에 흡수되고, 이후 옷을 입고 활동할 때 2차로

캡슐이 터져 오랫동안 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제품보다 향이 3배 강화됐다는 게 피죤 측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식물에서 유래된 세정 성분을 사용하고, 벤조피논과 형광증백제, 인산염 등 인체에 해로운 대표 물질 10가지도 첨가하지 않아 소비자의 건강도 한 번 더 생각했다. 자사 타 제품보다 2.1배 고농축돼 적은 양을 사용해도 동일한 효과를 느낄 수 있고, 1개 제품당 최대 142번의 빨래에 투입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피죤 리치퍼퓸에는 '플라워 페스티발'과 '씨니 거든', '오션 후레쉬' 등 3가지 세부 제품이 있다.

문혜선 조선비즈기자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블라우스 출시... 봄 패션 선도

COMPAGNA

폼빠니아

인디에프의 여성복 브랜드 '폼빠니아'가 조선비즈가 주최하고 조선일보와 TV조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2017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여성복 부문 대상을 받았다.

폼빠니아는 복고풍(레트로) 요소를 로맨틱하게 재해석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대로 전 연령층으로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여성복 브랜드다.

폼빠니아는 올해 봄에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에게 다가서고 있다. 밝은 색상의 꽃무늬, 리플(물결 모양 주름)과 리본이 가미된 블라우스 제품은 평소 입는 청바지나 치마 등과 함께 입기 좋은 신상품 중에서도 인기가 높은 편이다. 특히 노란색으로 꾸며져 화사한 느낌이 드는 블라우스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빠르게 판매되며 봄 매출을 이끌고 있다.

폼빠니아는 다양한 업종과의 협업(콜라보레이션)도 진행해왔다. 디자이너가 방 브랜드와 함께 제품을 만들어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공연 전시업체와 협업해 소비자와 소통하며 브랜드 감성을 공유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의류 브랜드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접근하며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것이다.

또 젊은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공식 소셜네트



워킹서비스(SNS) 채널도 운영하며, 주 타겟층이 즐겨 보는 일일 아침드라마 제작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도 펴나가고 있다.

폼빠니아만의 감성을 살리는 제품을 출시하고, 소비자와 꾸준히 소통해 가장 사랑받는 여성복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진혁 조선비즈 기자

Renault Samsung Motors
SM6
Beyond Driving

따라오는 아들까지 물들이다
앞서가는 자의 색이란 이런 것

신비로운 매력의 새로운 블랙
SM6 Amethyste Black

SM6 식스센스 프로모션
2017 SM6를 1,000만 원 특별 혜택으로 만나는 날에는 기회. 지금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renaultsamsung.com